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9장 황금률

『산상설교』 하권 제49장, 인쇄 256~26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12

> ❓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 주라"는 건 누구나 아는 말인데, 왜 아무도 제대로 못 지키고,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7장 12절 첫머리의 "그러므로"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황금률이 7장 1절부터 이어진 '남을 비판하는 문제'의 결론이라는 표시다. 그는 먼저 황금률의 방법을 설명한다. 나에게서 출발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져 본 뒤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를 풀며, 율법은 규칙 목록이 아니고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을 담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단순하고 누구나 감탄하는 규칙을 인류가 2천 년 동안 지키지 못한 까닭을 묻는다. 그 답은 신학, 곧 타락과 자아중심성이다.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해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듯 남을 보게 될 때 비로소 황금률을 살 수 있다.

📜 절별 정리

📜 1. "그러므로" — 비판 문제의 결론

로이드 존스는 12절이 따로 떨어진 격언이 아니라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앞의 말씀과 이어져 있다는 증거다. 주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7:1~6)을 하신 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가르침(7:7~11)을 주셨다.

그러면 왜 6절 바로 뒤에 두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의 답은 이렇다. 12절은 비판 문제 전체를 요약하는 말인데, 기도에 관한 말씀 뒤에 놓일 때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는다. 그 이유는 6절에서 밝혀진다. 그는 황금률을 다른 곳의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 계명의 요약으로 본다.

1. "그러므로"는 7:1부터 이어진 비판 주제의 결론
2. 기도 말씀 뒤에 놓여 더 큰 설득력을 얻음
3. 황금률은 이웃 사랑 계명과 같은 내용
4. 이웃 관계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12

설교 본문. "그러므로"로 앞 문맥과 이어진다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1

황금률이 결론짓는 원래 주제, 곧 비판하지 말라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6

반론의 출발점. 왜 이 절 바로 뒤가 아닌가

>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22:39

황금률과 같은 내용인 이웃 사랑 계명, 계명들의 요약

>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황금률의 독특함은 출발점에 있다. 문제를 상대방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시작하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하고 격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낙심시키고 내 안의 가장 나쁜 것을 끌어내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지, 무엇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묻는다. 그는 이것을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말까지 목록으로 자세히 적어 보라고 권한다.

그다음은 단순하다. 나쁜 말을 듣기 싫다면 남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신경을 긁는 사람이 싫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윤리,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다룬 모든 교과서를 줄이면 결국 이 결론에 이른다.

그는 국제 문제를 경제나 정치 문제로만 보는 생각을 어리석다고 한다. 그런 문제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귀착된다. 돈이 개입되기는 하지만 돈은 “일종의 계산기”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다.

1. 출발점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
2. 좋고 싫은 것을 생각·말까지 자세히 따져 보기
3. 모든 윤리 교과서를 줄이면 이 한 문장
4. 국제 문제도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
5. 돈은 계산기일 뿐, 문제는 욕망의 충돌

> **마태복음 7:12**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곧 나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돈은 일종의 계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3.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 율법의 참 정신

주님이 산상설교 내내 다루신 비극, 곧 율법이 오해받아 온 문제를 다시 본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되풀이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바른 율법관을 주려 하셨다.

그는 두 가지 잘못된 율법관을 짚는다. 하나는 율법을 기계 사용설명서 같은 규칙 묶음으로 보고, 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율법을 금지 목록으로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본래 긍정적이고 영적이며 살아 있는 것이었다. 바리새인은 그것을 기계적인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끌어내렸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 계명을 지켰다고 여겼고, 몸으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

율법이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심을 금하는 목적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그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를 해칠 수 없다. 길 잃은 이웃의 소를 돌려주라는 규정이 좋은 예다. “율법이 시키니까 돌려준다”가 아니다. “그는 나와 같다. 소를 잃으면 그에게 큰 손실이다. 누가 내 소를 돌려주면 나는 얼마나 고맙겠는가”가 율법이 바라는 마음이다. 자세한 규약들은 이 중심 원칙을 보여 주는 실례일 뿐이다.

1.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자 목적
2. 율법은 사용설명서식 규칙 목록이 아님
3. 율법은 금지가 아니라 긍정적·영적인 것
4. 바리새인은 행위만 안 하면 됐다고 여김
5. 세부 규정은 이웃 사랑 원칙의 실례

> **마태복음 5:21~22**
> “옛 사람에게 말한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살인 계명의 영적 의미 회복
>
>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마태복음 5:27~28**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13~17

그가 나열한 살인·간음·도둑질·탐심 금지 계명. 목적은 이웃 사랑

[13] 살인하지 말라 [14] 간음하지 말라 [15] 도둑질하지 말라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 22:1

길 잃은 이웃의 소를 돌려주라는 규정. 규칙이 아니라 공감으로 지키는 예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 4. 감탄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세상

로이드 존스는 사람들이 황금률을 “놀라운 요약”이라며 찬사만 보내는 것을 비극이라고 한다. 율법은 칭찬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있다. 주님이 7장 끝에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신 것도 같은 뜻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가 사이, 한 나라 안의 계층 사이, 가정 안, 두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 질투와 험담이 있다.

여기서 그는 한 입장을 반박한다. 신학, 특히 바울 신학은 싫고 신학 없는 실제적인 산상설교가 좋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황금률을 가르치고 교육하면 실천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황금률은 거의 2천 년 동안 인류 앞에 있었다. 특히 지난 200여 년 동안 법과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1. 율법은 감탄이 아니라 실천을 위해 있음
2. 반석과 모래 비유가 같은 요구를 함
3. 다툼은 국가에서 두 사람 사이까지 있음
4. '신학 없는 산상설교'는 공허한 견해
5. 2천 년의 가르침, 200년의 교육이 실패함

> **마태복음 7:24~27**
>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곧 황금률은 실천하라고 주신 것
>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율법은 찬양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 5. 왜 못 지키는가 — 타락과 자아

그는 왜 못 지키느냐에 대한 답이 “신학적이며 성경적”이라고 한다. 복음의 첫 진술은 사람이 타락해 악에 속박되었고, 그래서 황금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원인을 세 겹으로 파고든다.

첫째,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안락의자에 앉아 추상적인 말을 들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순간 분개한다.

둘째, 율법을 미워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자연인, 곧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이자 하나님의 원수다.

셋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자아' 한 단어로 귀착된다. 우리는 늘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자기중심성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주성을 막으시는 분이라서, 사람은 본성상 그분을 싫어한다.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남아 있다는 점을 비극이라고 한다. 노동쟁의가 좋은 예다. 한쪽은 “나는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가 더 가지면 내 몫이 준다”고 한다. 그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더 가질 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한다. 다만 가슴 아픈 충돌은 늘 죄와 자아에서 온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는 자기를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보지만, 애국심에는 '나의 나라, 나의 권리'라는 이기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는 한 군비축소 회담 같은 제안은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1. 답은 신학, 곧 인간의 타락과 죄
2. 율법이 내게 적용되면 미워하게 됨
3. 율법을 미워함은 하나님을 미워함
4. 그 뿌리는 잘못된 자기 사랑, 자아
5. 노동쟁의·전쟁도 자아로 귀착

> **로마서 8:7**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곧 율법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
>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에베소서 2:12**
>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 곧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연인의 상태
>
>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복음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라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은 먼저 하나님 사랑이고, 그다음이 이웃 사랑이다. 그는 이 순서에 주목하라고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웃을 보기 전에는 둘 다 바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누구나 “나는 부정하다”고 느낀다. 그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체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콧대를 꺾어 우리를 티끌처럼 낮춘다. 그 자리에서는 내 권리나 체면을 내세울 수 없고, 나를 방어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러면 남을 보는 눈이 바뀐다. 남은 더 이상 내 권리를 빼앗거나 돈과 지위 경쟁에서 나를 밀치는 가증한 사람이 아니다. 나처럼 죄와 사탄에게 희생되고 '이 세상 신'에게 속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동료 인간으로 보인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어진다.

여기서 기도 말씀(7:9~11) 뒤에 황금률이 놓인 이유가 밝혀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악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은혜로 대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의 불쾌하고 추한 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신 빛 아래서 남을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자아의 횡포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때 바울처럼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고,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그런 삶은 세상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을 세상에 보여 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교사와 전권대사로 만든다.

1. 큰 계명의 순서: 하나님 사랑 다음 이웃 사랑
2. 하나님 앞에 서면 권리 주장이 사라짐
3. 남은 원수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동료 죄인
4. 하나님은 우리를 공로가 아닌 은혜로 대하심
5. 그 은혜의 눈으로 볼 때 황금률이 가능해짐

> **마태복음 22:37~39**
>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웃 사랑이 다음이라는 순서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4:4

'이 세상 신'에게 속은 자, 곧 이웃을 동료 희생자로 보는 근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태복음 7:9~11

악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곧 황금률이 이 말씀 뒤에 놓인 이유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21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런 자유”, 곧 자아의 속박에서 풀려난 상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16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새로운 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12 말씀에 붙은 이름이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이다. 율법의 겉 조문만 지키고 그 정신은 놓쳤다.

율법의 조문과 영
겉으로 드러난 규정(조문)과 그 규정이 목표하는 속뜻(영)을 구별하는 말이다. 이 장에서 속뜻은 이웃 사랑이다.

타락
첫 사람의 죄 이후 인간 본성이 죄로 왜곡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한다.

자연인(육신의 생각)
거듭나지 않은 본래 상태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자아중심성
무엇이든 자기 행복과 권리를 중심에 두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 성향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다. 공로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심을 뜻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황금률은 7:1부터 이어진 비판 문제의 결론이며 율법과 선지자 전체의 요약이다.
- 율법은 규칙 목록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려는 영적인 것이다.
- 인류가 황금률을 알면서도 못 지키는 이유는 타락과 자아중심성에 있으며, 교육이나 회담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 하나님에게서 시작해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그분이 나를 은혜로 대하셨듯 남을 볼 때 황금률은 실천 가능해진다.
- 그런 삶은 세상에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을 보여 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